



한강도보순례 기행

‘한강(漢江)’.

대한민국 힘의 물줄기이자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강이기도 하다. 간선(幹線) 유로연장 481.7km. 법정하천연장 405.5km. 유역면적은 2만 6018㎢, 북한지역 포함 3만 4473㎢이고, 상류부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둘로 나뉘며 남한강을 본류로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관련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한강도보순례’는 한강을 참여자들이 직접 도보로 통해 확인함으로써 한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한강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남한강’ 지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에서는 한강도보순례 연재를 통해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사진·기사·강내영, 홍성인 기자

“이젠 일본어로 연극도 해요”

동두천외고, 국제통역사절단 선발대회 참가

동두천외고(교장 김윤수)는 지난 6월 8일 국제통역사절단 협회가 주관하고,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및 각국 대사관이 후원하는 제10회 국제통역사절단 선발대회 및 외국어 경연대회의 일본어 연극부문에서 각각 조직위원장상과 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학교는 올해 초 제4회 한일 교류 일본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전례도 있어 일본어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의 공로가 크다. 와타베 히로아키(31세) 선생님은 학생지도에 남다른 애정과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외국어 수업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과 함께 공감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 수업의 비법은

함께 하기”라고 말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식사 시간에도 꼭 학생들과 일본어 관련 놀이를 하거나 일본어로 대화를 즐겨한다.”고 말한다.

또한 평소에도 일본어 교환일기 작성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일본어 토론 동아리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일본어 회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연극 지도를 위해서도, 수차례 일본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전례도 있어 일본어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이번 외국어경연대회 일본어연극부문에서 입상한 권주빈(2)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실력만으로 연극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생겼다.”고 즐거워했다.

엄마가 책 읽어주니 “좋아요”

광주학부모독서회 강사 교육

광주학부모독서회(회장 이경숙)는 단위 학교 책 읽어주기 지원 봉사자 양성을 위해 학부모 독서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책 읽어주기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책 읽어주기는 학부모 독서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아침 수업 시작 전과 방과후에 실시하는 자원 봉사 활동으로 단위 학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강사 교육은 단위 학교 자원 봉사자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이론과 실기 2기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각 기마다 기초 과정 100명, 심화 과정 50명씩, 총 300명으로 운영한다.

광주학부모독서회 이경숙 회장은 2009학년도에는 그동안 독서회 활동 중, 학교 현장에서 호평을 받았던, 책 읽어주기 강좌 운영이나 모자 동행 독서 기행,

학교 도서관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우미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단위 학교 책 읽어주기 강좌 운영은 학생 독서 교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학부모 독서회는 자녀 독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열정으로 1999년부터 활동해 온 광주 독서 교육의 산이라고, 광주 독서 교육의 참병이 자 지원병”이라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과 파스한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 독서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책 읽어주기 교육을 들은 염주초 2년 박세희 학생은 “엄마가 학교에 책 읽어주니 자랑스럽고 신난다.”며 “앞으로도 계속 엄마가 학교에 와서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swan@eduyonhap.com

‘한강’ 끊이지 않는 생명과 배움의 물줄기

제 3 회

도보순례단은 아우라지 탐방을 마치고 문곡강변을 따라 정선읍에 도착한 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날 도보순례는 남한강의 발원지인 최상류 지역을 탐방하면서 순례단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 하지만, 최상류 입에도 주변 경작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은 최상류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과 경제라는 논제에 부딪힌 ‘조양강’

도보순례 둘째날.

문곡강변부터 시작되는 여정을 시작했다.

문곡강변이 있는 ‘조양강’은 북면 여량리 아우라지에서 팔지천과 송천을 만나 남서쪽으로 흐른다. 다시 북평면 내천리에서 오대천과 만나 남쪽으로 흐르고, 정선읍 내를 휘돌아갈 무렵 동면에서 흐르는 동대천과 만나서 정선읍 용탄리 범여울을 지나 정선읍 가수리에서 교한, 사북 남면을 휘돌아 온 동남천을 만나기 전까지 ‘조양강’이란 이름으로 흐른다.

조양강을 탐방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변의 하얀돌들이다. 유독 하얗게 보이는 이 돌들은 석회암 지대에서부터 굴러내려온 돌들로 조양강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다.



도보순례단이 조양강 지류일대를 걷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조양강. 도보순례단이 조양강 지류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이곳의 환경은 이미 자연중심의 모습 보다는 인간 중심의 환경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로 예전 농로(農路)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길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다. 그만큼 조양강 주변은 첫날 순례단이 탐방했던 최상류 지역과는 차이가 있었다.

강 주변에서 규모가 큰 경작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날 볼 수 없는 대규모 축사도 보였다.

특히 인공제방은 도보순례가 진행될 전역에 걸쳐 이루어져 있어 생태계 단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제방은 농로의 개량과 홍수시 댐을 막기 위해 생성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수변 생태계의 변화를 막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제방이 가진 생태계 단절 효과를 보면 제방 상단부에 생존했던 생물이 하단부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다시 상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처음부터 하단부에 있던 생물은 아예 상단부로 올라가지 못해 상호간의 교환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해 향후 소규모의 인공제방을 만들 시에도 생태연결통로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 탐방 중에는 ‘소수력발전소’도 보였다. 정선군 여량면에 위치한 이 소수력 발전소는 10,000kw의 전력을 생산해 1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준다.

도보순례에 함께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소수력발전소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며 “생태계의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경제성이 커 소수력 발전소는 늘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소수력발전소의 특성상 하류는 물이 많은데 비해 상류는 건천이 될 수 있어 수질은 물론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환경분야에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경제성’ 두 가지의 논제는 이번 도보순례에서도 빈번하게 거론되는 문제였다.

<다음호에 계속>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작은 칸에 담긴 희망이 있어
내일은 더 맑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내일은 더 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해 모한 손이, 불완전한 환경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포스코의 환경경영정신-아이들에게 맑은 내일을 더 맑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